

56th KLA GENERAL CONFERENCE



2019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도서관의 역할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일 시 2019.10.17.(목) 09:00~10:40

장 소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7호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포럼 일정표

1. 포럼 명 :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2. 개요

- 일 시 : 2019.10.17.(목) 09:00~10:40
- 장 소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7호(100석)
- 참가인원 : 100명 내외
- 참 가 자 : 작은도서관 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 내 용 : 작은도서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지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을 이야기한다.
- 구 성 : 발표 2인 및 토론 (질의 및 응답을 중심으로)

3. 추진 배경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자체들의 교육은 이어진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 과연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지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을 이야기한다. 본 발표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진행 중인 '2019 작은도서관 정책연구지원사업' 중 실제 연구에 기반한 사례와 데이터 중심의 발표로 향후 작은도서관 관련교육 기획 및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세부프로그램

구분	시 간		내 용
등록	08:40-09:00	20'	참가 등록
개회	09:00-09:05	5'	인사말 및 개회선언 (인사말:박소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발표1	09:05-09:30	25'	2018 작은도서관 교육현황 조사 박미애(강원 철암도서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
발표2	09:30-10:10	40'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김경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10:10-10:30	20'	발표자 모두
폐회	10:30		폐회선언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목 차

제56회 도서관대회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포럼 일정표	3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소개	5
작은도서관 교육, 어디까지 와 있나? - 수요와 현황을 중심으로	9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17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 새로운 책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진행.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은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숍 진행.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실무자 재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작은도서관 포럼 및 연구 활동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포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포럼진행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발간

- 1999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 2005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 2006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 도서관』
- 2007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 2008년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 : 품앗이를 위한 도서관학교』
- 2010년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전국 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2013년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2015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5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5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결과자료집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똑똑똑』, 『북유럽도서관을 듣다』
- 2016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6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6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 2017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7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획총서-1.작은도서관운동의 역사찾기 / 2.작은도서관을 들여다보다 /
 3.문화, 작은도서관을 건드리다 / 4.마흔아홉,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싱가포르도서관 탐방』
- 2018년 『독일메르헨가도탐방』
 『2018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기금 자료집 - 작은도서관 와하하하』
 협회 20주년 다큐멘터리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다양한 독서 및 도서관 사업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 작은도서관에 작가 및 독서 문화예술 강사 파견 및 강의 진행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 작은도서관의 독서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전국 작은도서관 및 운영자 역량강화를 목표로 기금 조성·운영, 작은도서관 아카이빙,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작은도서관 특화지원,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및 콘퍼런스 등 진행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돌려보기,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 어린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 공공도서관이 찾아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 서비스 제공.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 서울 아름다운가게 배분사업

서울 지역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협회가 걸어온 길

- 1998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 1999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발간
- 2001 어린이도서관용 분류법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2004 문화관광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광부 제3호)
- 2005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문광부에 등록
- 2006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 출판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사업)
- 2007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법인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승인
- 2008 마포구 작은도서관 3개관 수탁운영, 전국 어린이책 잔치 한마당
- 2009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문헌 및 사례연구
- 2010 전국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도서관 책꾸러미 둘러보기
- 2011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음악회
- 2012 청소년 인문학 소풍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 2013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 옴니버스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수탁 운영
- 201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제작
- 201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로 명칭 변경
회원워크숍 '향' 개최
북유럽도서관탐방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시작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 2016 일본도서관탐방
2016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포럼

- 2017 회원워크숍 ‘길’ 개최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설립
작은도서관아카데미, 정책연구, 특화지원, 119긴급지원 등 진행
싱가포르도서관 탐방

- 2018 회원워크숍 ‘휴’ 개최
#작은도서관무슨책임어? 캠페인 진행
‘스스로’ 아카데미, 정책포럼 등 진행
독일메르헨가도 탐방

- 2019 작은도서관 아카이빙전시 ‘작은도서관-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기금사업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업무협약
#작은도서관무슨책임어? 캠페인
작은도서관 콘퍼런스(11월)



작은도서관 교육, 어디까지 와 있나?

- 수요와 현황을 중심으로

2018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교육위원회

제1장 서론

작은도서관은 199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2009년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었다.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작은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대비 약 5배에 해당하는 4686개소였으며, 2018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수는 6330개관이었다.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작은도서관의 성과와 과제(김자영외 3인, 2017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방안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확산하고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사서교육의 내용과 작은도서관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 활동가를 무조건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인력 역량에 대한 도서관계가 논의를 통해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원하는 교육의 수요조사를 하여 자료연구로 진행하였다.

제 2장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고, 연구대상의 기관홈페이지와 자료집들을 살피고 분석하

였다.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와 인터넷에서 ‘작은도서관교육’ ‘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활동가 역량강화’로 검색해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도서관 홈페이지와 협의회 카페와 신문기사에 나오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광주광역시처럼 작은도서관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시군구에서는 오래된 자료와 도서관교육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도서관들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아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검색능력의 한계로 교육은 했지만 자료 수집에 포함 안 된 자료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200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진행한 도서관교육 476회를 표본으로 삼아 지역별 작은도서관 교육현황과 강의내용을 분석하였다.

2. 조사분석

전국 작은도서관 지역별 교육현황																			
지역 교육 횟수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총합계	
	2003						1		1					1					3
2004		4											1					5	
2005		2											1					3	
2006		1					1					1	1					4	
2007		2					2										3	7	
2008		3					2		1		1							7	
2009	1	5	1				2				2			1			1	13	
2010		4	1			1	2	1			3	3	2					1	18
2011		6	1	2		2	2	1			3	4	1		1		1	24	
2012		9			2	1	3	2	3		2	5	2	1	1	1		32	
2013		10	2		7		3	2	3		5	7	1	1	1	1		43	
2014		10	2	1	10	2	2	2	8		3	8	2		1	1		52	
2015	1	16	1	1	2		4	1	7		2	9	2	1	1	1	1	50	
2016	3	15	1	3	3	3	3	3	8		4	5	2	5	1	1	1	61	
2017	1	23	1	3	2	3	2	2	7	2	5	11	3	7	1	1	3	77	
2018		18	2	2	4	1	6	2	16	1	3	6	4	6	1	2	3	77	
총합계	6	128	12	12	30	13	35	16	54	3	33	59	23	22	8	8	14	476	

1) 지역별 교육현황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작은도서관 교육 476회를 지방정부별로 비교하니 다음과 같았다.

2003년 3곳의 교육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통과하면서 작은도서관 교육 횟수가 꾸준히 증가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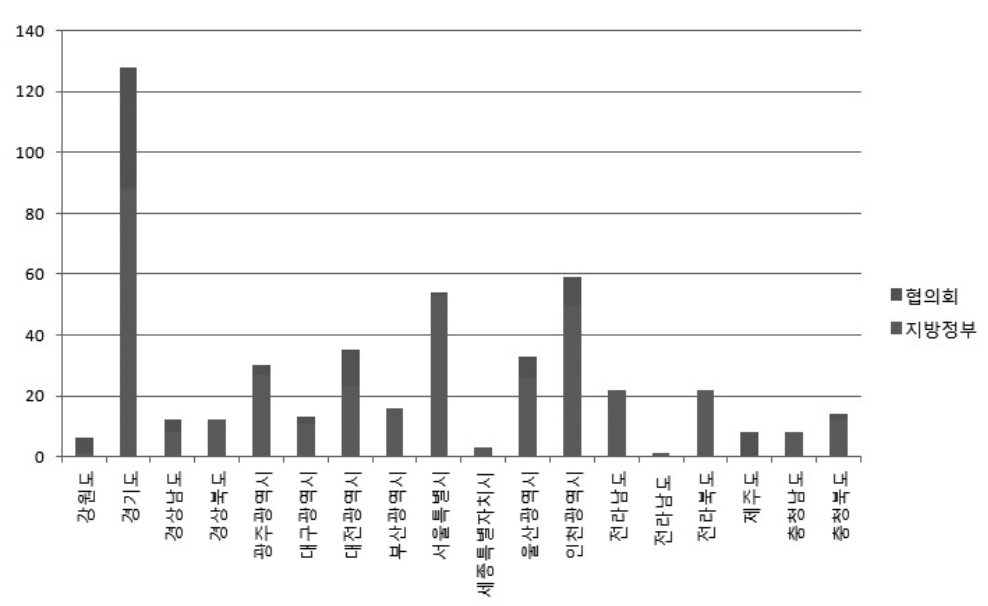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교육을 시작한 곳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대전)와 열린사회시민연합, 순천기적의도서관이다. 개별도서관에서 내부강의 형식으로 진행해오던 것을 연합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활동가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 시작한 것이다. 2003년 당시 작은도서관들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나아가 기적의 도서관과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도서관을 어린이와 책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작은도서관교육은 주로 활동가를 키우는 자리였다. 기적의 도서관 1호인 순천기적의도서관은 제1회 도서관학교를 열어 순천시민들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알려주었다.

지역	주 관	연 도	강좌명
대전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2003	어린이도서관학교
서울	열린사회시민연합(송파,은평 동대문구)	2003	어린이도서관전문자원활동가양성프로그램
순천	기적의도서관	2003	도서관학교

2) 교육 주체에 따른 교육현황

2003년 교육은 협의회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교육의 주체는 지방정부 도서관담당과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주체가 달라지면서 교육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울주군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던 도서관학교를 2016년부터는 울주군 통합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역량강화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육주체로 협의회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여전히 작은도서관 교육의 시행주체는 지자체나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협회나 네트워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작은도서관 교육 내용

전국에서 진행된 476교육에서 대상자와 강의진행방식을 드러난 제목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교육제목이 드러나지 않은 한 곳을 제외한 475곳을 분석하였다.

(1) 강의 제목별 분류

작은도서관교육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학교/어린이도서관자원활동가양성프로그램/도서관학교/재미있고신나는어린이도서관실무자학교/문고운영자 도우미를 위한 도서관학교>라는 강좌명으로 개설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독자이용자대상연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장르별책심화도 어린이책, 동화, 그림책, 외국아동문학의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책문화프로그램도 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과 책과놀이, 도서관에서 미술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책문화운동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학교는 2010년까지 사용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어린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도서관학교를 주로 사용했다.

강의제목의 다양함에서, 작은도서관 인력과 공간이 여전히 안정화되지 못하고 중요시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인력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의 확산 등을 통해 교육의 목표와 대상, 주제 등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2) 작은도서관 교육내용

2003년부터 시작한 교육 1847강좌 중에 강의목록이 없거나 웃음치료 같이 분류하기 어려운 강좌 78개를 제외한 1769강좌를 분류하였다. 가장 많이 한 교육은 1.책문화프로그램(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과 실제) 2.장르별 책심화, 책보수, 글쓰기, 북큐레이션 3.작은도서관의 이해 4.자료관리 실무(수서~폐기), 목록분류 5.자원활동가 조직과 후원회원 유치 6. 독자, 이용자 대상 연구, 어린이 청소년 성인-대상에 따른 책연구 순이었다.

작은도서관 홍보 영역은 설문조사를 할 때는 따로 영역을 만들지 않았으나, 작은도서관 홍보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 3장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 수요조사

1. 조사개요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 수요조사는 설문조사방식으로 작은도서관 활동가(운영자, 사서, 활동가,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7주간이며,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운영위원회의 도움으로 협회회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온라인설문을 하였다. 오프라인조사는 9월 1일 김해독서대전에서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협조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확인과 검증을 거쳐 확보된 최종

분석대상 표본수는 총 238개(온라인조사 217개, 오프라인조사 21개)이다.

2. 진행과정

1차 회의는 4월 20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작은도서관 교육 현황을 실질적 이해당사자 및 담당자들을 통해 이메일 설문으로 실시하여 취합된 내용을 자료화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 기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2차 회의는 5월 11일, 3차 회의는 6월 22일에 하였다. 2,3차 회의에서는 작은도서관교육현황을 파악하여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현재 진행중인 교육과정을 구조화하였다. 구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7월에는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4차 회의(8월 28일)에는 1차 설문조사(7월30일~8월28일)된 136개의 표본내용을 분석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설문을 받기로 하였다.

5차 회의(9월 28일)에는 9월 18일까지 설문 받은 238개의 표본을 분석하여 결과를 보았다. 표본수가 136개인 경우와 238개의 경우 결과가 비슷하였다. 그래서 계획했던 설문수는 300이었지만 더 이상 추가설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3.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45명(18.9%)이며, 사립이 193명(81.1%)이었다.

작은도서관에서 맡은 역할별로 살펴보면 운영자가 119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서45명(18.9%),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 담당자, 활동가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차별로 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인 73명(30.7%)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은 30명(12.6%)로 나타났다. 1년이상~5년 미만으로 본다면 112명(47%)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조사(2017년)에서 나타난 도서관이 운영된 기간이 1년이상~5년 미만이 2,441개관(4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이 1,751개관(28.9%), 10년 이상이 1,320개관(21.8%), 1년 미만이 546개관(9.0%)의 순으로 조사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작은도서관활동가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151명(63.4%)로 가장 왕성한 것으로 보이며, 40대~50대 전체의 78.2%를 차지한다. 응답자의 지역은 광주광역시(19.3%)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16.3%), 서울특별시(14.3%), 경상도(11.8%) 순이었다. 김해독서대전에서 오프라인 설문을 받은 결과 경상도 지역의 응답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2) 교육 현황

(1) 교육경험 유무

응답자 238명 중에서 205명(86.1%)은 교육경험이 있지만,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는 33명(13.9%)이다. 지역별로 살펴

보니 경기도 평택은 2명이며, 광주, 경기 하남, 대구, 서울, 포항 등 골고루 분포되어있어 지역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교육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연차별로 살펴보니 1년 미만이 3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꼭 필요한 교육과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 꼭 필요하다고 선택한 교육은 1. 작은도서관의 이해 (도서관 역사와 철학, 도서관법), 12. 책문화프로그램(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과 실제)/책축제(행사의 기획과 실제), 3. 자료관리 실무(수서~폐기까지), 목록분류, 2.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YS, 책꽃이 등), 6. 운영매뉴얼 교육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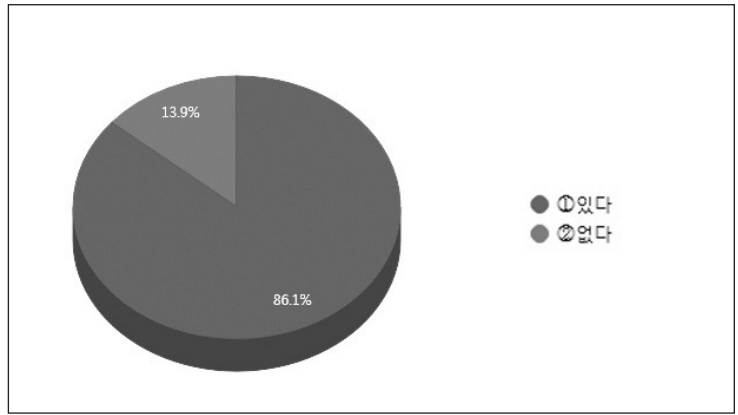


그림 2 교육경험 유무(있다/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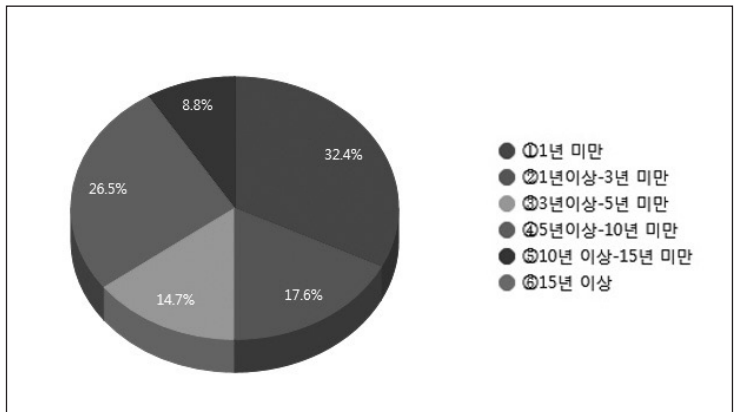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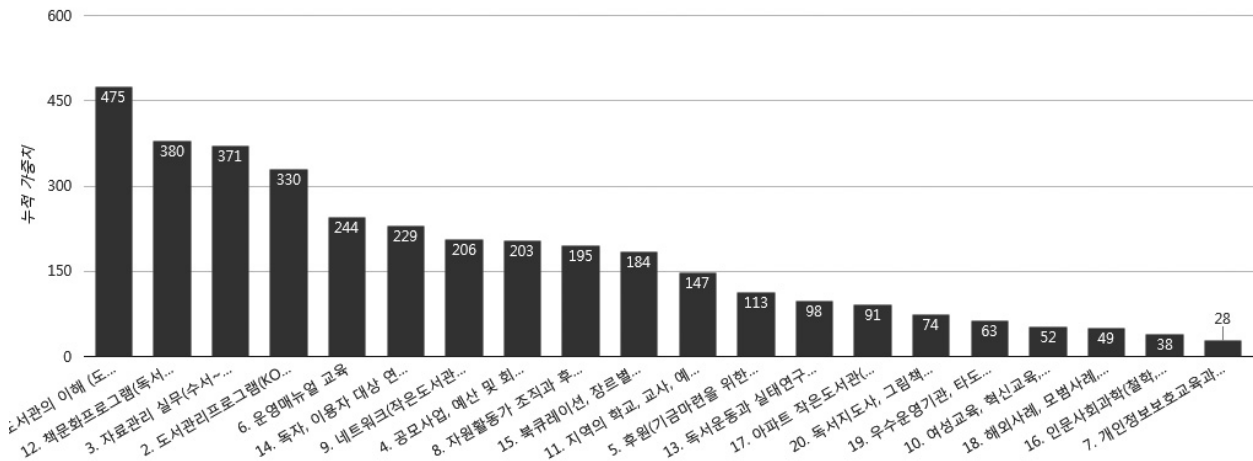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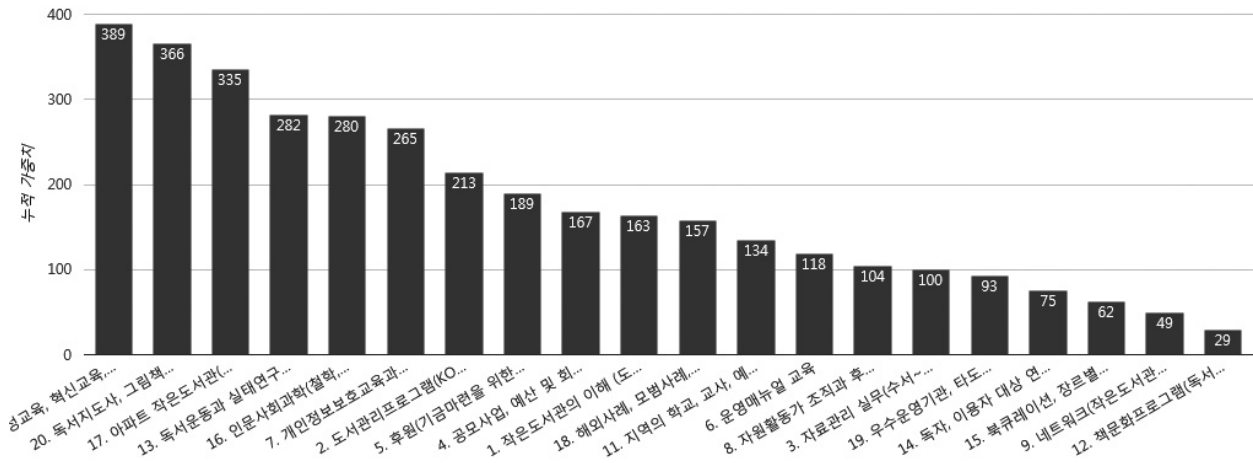


그림 3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연차별 비교차트



꼭 필요하지 않는 교육은 10. 여성교육,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20. 독서지도사, 그림책지도사, 북아트 등, 17. 아파트 작은도서관(이해와 운영), 13. 독서운동과 실태연구에 대한 이해, 출판경향(출판시장의 현재와 미래 등), 16. 인문사회과학(철학, 여성학,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건축학(공간구성)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를 꼭 필요한 교육의 선호도와 꼭 필요하지 않는 교육의 비선호도를 살펴 비교해 본 결과 작은도서관의 이해, 책문화프로그램, 자료관리(책), 운영매뉴얼교육, 네트워크, 자원활동가 조직과 후원회원 유치(사람) 순으로 필요한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니, 실제 운영상의 도움(123명)이 가장 많았으며, 작은도서관의 이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7명), 책의 중요성(27명), 네트워크(8명), 자기개발에 도움(4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이라고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니, 실제 운영상의 도움이 되지않다(71명), 당장 시급한 교육이 아니다(65명), 이미 습득함(32명), 자격증 지양(18명), 작은도서관의 특성이 다양하여 실제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않다(1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3)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에 대한 자유의견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에 대한 자유의견을 살펴보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요청한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회확대(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다양한 교육내용)를 바라는 경우가 30명으로 많았다. 지역네트워크를 원한다(18명), 지역안배를 통해 권역별로 시행해달라(16명), 공공도서관과의 연계(16명), 활동가와 활동역량강화(12명), 이용자대상교육확대(12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교육(연차별, 기초/심화)과 특성화도서관과 도서관 미래정책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제 4장 결론

조사결과 작은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의미나 철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 독서활동을 보다 잘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올바른 도서관운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하고 네트워크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작은도서관이 공간·인력 등이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 주체들의 목적의식

적인 운동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은도서관 운영주체들에게는 자발적인 작은도서관 운동의 철학과 내적 동기가 중요하며, 작은도서관 운동의 사회적 의미, 독서운동의 필요성, 좋은 책에 대한 판단, 지역에서의 올바른 정책과 네트워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그러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수요자들의 자격증 과정이나 사회의 트렌드상 필요해 보이는 교육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경우, 작은도서관 현장에서의 요구와는 괴리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안정화에는 인력의 안정화가 관건이며, 인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동가교육을 많이 실시한 결과 작은도서관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작은도서관 교육이 현장의 요구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실시 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2018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 김경희 · 박미애

제 1장 서론

1.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작은도서관은 마을에 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온다.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를 실무자가 맞이한다. 대다수 작은도서관에서 실무자 1인이 근무한다.¹⁾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도서관 전체를 이해하고 주어지는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은 6,330개이다. 그 중 직원(상근+시간제)이 있는 도서관 3,914개관이다.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곳은 1,744개관이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없는 도서관도 672개관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47). 유급의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은 17년 전과 다르지 않다. 2002년 문고에는 유급담당자가 없거나 적다보니 도서관 열람 대출, 서가 정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자원활동가와 같이 했다(전영순, 2002).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력의 안정과 실무자 교육을 제안한다(김보일외2, 2015:50).

작은도서관 실무자교육은 지자체마다 간담회, 선진지 견학, 운영자교육 형태로 진행한다. 작은도서관 교육을 권장하기 위해 교육을 들으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주거나, 교육수료시간이수는 지자체 평가 인력-전문성 부분점수에 반영된다.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련교육에는 1,365개관(21.6%) 직원이 참여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51). 교육을 주최하는 지자체 교육은 일회성 교육과 해마다 비슷한 교육내용이 중복되며, 실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실무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김자영외 3, 2018). 한 지역에서 운영자들이

1) 1인이 근무하는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one man library' 라고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전재자(generalist)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specialist)' 이어야 했다(남태우, 2018).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폭이 한정되어 있고, 개론적인 교육수준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이다(박소희, 2019:182). 교육을 듣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육은 수도권에 주로 열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신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작은도서관 교육내용의 부족은 민간자격증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²⁾에서는 작은도서관실무자 연수교육으로 모집해서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 자격증으로 1인 기업인 도서관을 열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 한다. 작은도서관에 이해가 적은 지자체인 경상북도 K군, 경기도 Y시에서는 민간자격증 과정을 작은도서관 실무자 교육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면 좋을지 전체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과정은 적다. 실무자가 전체 교육내용을 보고 필요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찾아 들으며 채워나가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작은도서관 전체상황과 작은도서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서울금천구 마을사서과정, 경기도 슬슬협동조합의 책과사람을있다 운영자교육, 인천미추홀도서관 직무교육 따위가 있다. 이 교육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실무자들이 듣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잘 운영하고 싶은 실무자는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배우나갔다. 필요에 따라 교육을 찾아 듣고, 현장선배에게 배우기도 하며 성장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스스로 운영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익히고 배웠는지 그들의 경험을 살피며,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알고자 한다. 교육은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크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원하는 교육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작은도서관에서 새롭게 일할 실무자 교육에 활용가능하며, 실무자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풍성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전체 교육내용을 알 수 있으며 개별 도서관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나 대표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교육을 진행할 때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이 경험한 작은도서관 교육이 어떠했으며 이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교육을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인 문화기술지로 연구했다. 문화기술지는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작은도서관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지냈는지 아는데 유용하다. 그 속에서 스스로 힘을 내기 위해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성

2) 시민작은도서관협회는 헌신적인 종교인과 학원 경영인이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하려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주민 자녀들의 교육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로 돌려주라 제안한다. 협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해서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자 과정을 만들어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작은도서관운영관리자, 도서관 활동가1급자격증은 없고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자격증이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평생학습관에서 작은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자 양성과정을 열고 있다.

장해 왔는지도 알 수 있다.

1) 연구현장

작은도서관은 2009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규모는 공공도서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이뤄지는 역할은 마을 공동체의 거점이자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공간이다.³⁾

작은도서관에는 실무자나 자원 활동가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작은도서관 모임이나 교육에 참석한 사람, 지역을 방문할 때 만난 작은도서관 실무자를 면접하였다. 실무자라 함은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아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실무자들은 자원활동가로 시작한 사람부터 경력이 10년 넘은 사람까지 다양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작은도서관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작은도서관 교육과정을 기획진행하는 협의회 대표, 협동조합 대표, 여러 사람을 만났다. 실무자에 따라 작은도서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서 자신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과 주어진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자신의 일을 고민하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였다.

2) 자료수집

문화기술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에서 진행하는 참여관찰, 심층면접, 초점집단연구, 구술사, 생애사, 구술생애사 따위가 있다(윤택림, 2004).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에서 진행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인터뷰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는 작은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내용과정(김자영외 3, 2018)과 작은도서관 교육 참가 후기, 교육내용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살펴보았다.

참여관찰은 작은도서관 교육과정이나 모임에 참여해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연구자는 작은도서관 근무경험이 있으며 작은도서관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2017년부터 작은도서관 인력과 작은도서관 교육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연구하면서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만나왔다.

심층면접은 작은도서관 교육에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는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서 이들에게 정보 수집을 하였다.

3) 한겨레신문, 2012.10

이 밖에도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인터뷰와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은도서관 모임이나 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했다. 개방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교육경험까지 구체화된 질문으로 바꾸었다. 구조화된 인터뷰를 할 때는 미리 만나야 할 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부해서 질문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먼저 알리고, 인터뷰 계획표를 준비하였다. 인터뷰진행과정에서는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서 구체화된 질문으로 확대하였다. 이들의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은도서관에서 자신이 어떤 교육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3) 자료분석

(1)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문서, 녹음기, 사진기,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는 여러가지였으며 양이 많고 변화가능성이 있어, 어떤 법칙성을 찾기보다는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구조를 찾는 데 중심을 두었다. 면접한 내용을 범주화해서 초안을 잡았으며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의 면접, 문서고찰이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며,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할 때 자료수집을 멈췄다.

연구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분석은 주제와 유형화된 규칙을 찾아내어 문화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표, 파트, 다이어그램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2) 연구의 엄밀성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의 엄밀성은 꼼꼼하게 자료를 살피고 개인의 판단을 배제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양적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해당한다. 연구자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낮추는 것은 연구대상의 반응, 연구자의 편견, 연구대상의 편견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작은도서관 실무자와 관계, 자료다윈화,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를 사용하였다.

3. 선행연구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작은도서관 현황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작은도서관 인력과 교육, 운영 활성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최규명, 2008)에서는 사서직이 전문직이므로 전문직 교육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작은도서관에서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직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유양근 외 1, 2010)에 따르면 민간에서 세워진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는 조례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교육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였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운영자의 인식변화연구(박은경, 2012)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되 교육내용에 도서관에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도서관 업무 전반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보일의 2, 2015)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단기적으로 운영자교육과 순회사서 배치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와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작은도서관의 성과와 과제(김자영외 3, 2017)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지자체별 교육을 확산하고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사서교육의 내용과 작은도서관 현장에서의 활동내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작은도서관 활동가를 무조건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국한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인력 역량에 대한 도서관계간 논의를 통해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드러나지 않으며,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살펴보고 교육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장 작은도서관 교육 변화로 가는 길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능정보사회(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로 변화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14). 그 변화에 맞게 도서관계도 달라진다. 도서관이 좀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핀란드 도서관은 책만이 아닌 만화, 미술, 음악, 영화, 게임, 컴퓨터 등 지역에 따라서 보트, 우산, 재봉틀도 빌려준다. 헬싱키 도시작업장에서는 3D 프린터,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재봉틀과 버튼 만드는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을 어떠한 형태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화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서는 도서관이 정하는 비전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작은도서관은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마을의 특성과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마을사랑방으로, 독서문화의 장으로, 메이커스 공간으로 역할을 해나갔다. 기술 정보력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더욱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책(정보자원)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일하는 실무자의 역량이 보다 중요해질 때이다.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는 현장 실무자들이 있다. 작은도서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배웠는지 살펴보면, 지자체에서는 그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거들어 주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스스로 공부해 온 길

1) 무작정 찾아 나서기

작은도서관에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이 궁금해진다.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관련 교육과 정보를 찾는다.

도서관에서 이용하다가 청년일자리로 왔어요. 작은도서관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알려주면 들으러 가고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아직 잘 몰라요.(A도서관)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을 사서라 한다. 사서에 모습을 상상하면 책 대출반납 외에 떠오르는 게 없다. 사서가 하는 일이 궁금해진다.

사서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해 본적이 없잖아요. 사서자격증은 아니라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사서에 관한 것. 사서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B 도서관)

실무자로 일하면 대출반납은 어떻게 하지, 책은 어디서 사지, 이용자와 어떻게 지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면 궁금해진다. 이용자로 다니던 도서관과 운영자로 다니는 도서관은 마음가짐이 다르다. 교육이 있다고 하면 무작정 찾아다녀서 듣는다.

우선 도서관 회원으로 있다가 운영자로 된 경우여서. 전혀 모른 건 아니었지만 막상 운영자의 입장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첨에는 무작위로 막 들으러 다녔어요. 저자 만나러 가고,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강의들을 막 찾아서 들으러 다녔어요.(C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 어린이 책을 알아야겠지, 아이들과 같이 놀아야 하니 전래놀이, 레크리에이션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문화행사를 진행하려면 사회를 잘 봐야 하나, 해야 할 일과 알아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게 되고 배우러 다닌다.

독서치료사 공부, 도서관 하려다보니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독서교육을 받고 전래놀이지도사 레크레

이선지도사 조금씩 조금씩... 만능이 되어되더라구요. 애들하고 수업을 하려면 웃긴이야기도 많이 알아야하고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사회도 잘 봐야 하고... 조금씩 배웠어요. 특별히 자격증도 있지만 수료증.. 동화구연, 책읽기, 종이접기 담가 봤어요. 기초과정만 배웠어요. (D도서관)

작은도서관 실무자로 일하면서 작은도서관 관련교육을 듣고 배우지만 여전히 도서관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간혹 도서관계에서 작은도서관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한다. 문헌정보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

작은도서관이 학계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알아야지 무시를 덜 받을 것이다.(V도서관)

자원봉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책임감은 덜 했겠죠. 일을 하다 보니 서류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죠. 그러면서 배우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활동이 재미있어서 저도 사서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어요.(E도서관)

문헌정보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도서관의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다. 큰 틀에서 도서관의 방향, 사서 역할을 배워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실무자의 노력이다.

2) 앞선 경험에서 배우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배움은 끝이 없다. 관련 책을 읽고, 아는 선생님에게 묻고, 잘하는 도서관을 찾아간다.

(1) 책 읽기

책은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귀한 것이다. 책들을 직접 만지고 살피면서 책을 알아간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책들을 찾아 읽는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도서관에 맞는 책은 어떤 것인지 공부한다. 도서관에 일하면서 동아리를 꾸리고 같이 책을 읽다보면 점점 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 함께 책 읽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다른 이용자들에게 책을 추천해 줄 만큼 책 보는 눈이 생긴다.

아는 게 없으니깐 책읽기모임을 하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책 읽은 것을 서평 비슷한 것을 글로 썼고 아는 책이 많아지니깐, 내가 재미있으니깐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잖아요. 작은도서관에 사람(실무자)이 있으면 사람들(이용자)이 와서 새로운 책을 알게 되잖아요. (F도서관)

기적의도서관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책 목록을 적어주면서 이 책 읽어봐 그림책, 옛 이야기

책 입문서를 안내해줬지, 책을 당장 사서 밑줄 치면서 공부했어요. (G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책은 일로, 공부로 만난다. 일할 때는 책을 보고 만지고 정리한다. 옆에서 누군가 같이 책을 보고 정리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조금 더 자세히 책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배움이다.

일상에서 책을 드러내놓고 검수하고, 판단할 때 둘러보고 괜찮은지 어떻게 라벨을 할까 제목과 부합되는지 내용이 어떤지 그냥 이야기해주셨거든요. 책 냄새도 맡고 행복해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지속이 되고.. (L도서관)

(2) 먼저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배우기

도서관을 먼저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내 고민과 필요로 따라 관심 가는 주제 강의를 듣고, 내가 닦고 싶은 도서관 모습을 찾고, 내 상황을 잘 아는 선배 도서관에게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간다. 선배도서관의 경험과 조언은 힘을 줄여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사이가 된다. 닦고 싶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좋다. 그 도서관에 담겨진 철학, 본질을 긴 호흡으로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도서관을 왜 하는지 철학, 본질을 느끼니까 긴 호흡으로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철학을 배워 와서 느끼면서 다시 재정비하면서 느낀다. (H도서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며 적용할 바를 찾는다. 공간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프로그램운영으로 고민이 생기면 운영경험이 많은 도서관을 찾아가거나, 활동들을 정리해놓은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00도서관에 오면 10년의 노하우가 그대로 있다. 공간배치라든지, 야~ 10년동안 애 먹은 거 내가 딸랑 먹네(알아가네). 정말 곳곳에 알뜰살뜰하게 참 배치나 가구라든지 내가 1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요기 한자리에 와서 보고, 잘 되어있더라.(I도서관)

제가 기획에 꽃혀서 맨발동무도서관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서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새로 올라온 소식이 있나 도토리도 한번씩 보고 있어요. 거기 청소년프로그램이나 뭘 하나 기웃기웃하고 있어요. (J도서관)

연차가 오래된 도서관들은 새로 문을 연 도서관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 때는 엄청 고민되고 심각한 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 게 아닌 일들이 많다. 신규도서관이 요청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같이 해결책을 찾고,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곳에는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자원 활동가가 없는 곳은 함께 자원활동가 발굴을 위해 애쓰기도 한다.

2년 전에도 당시 해봄도 가창도 멘토링 같은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서 오래된 도서관과 신규도서관들이 같이해서,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도서관이 있다면 서로 네트워크 해서 돕는 게 좋겠다.(JK 도서관)

대구광역시와 경기도는 멘토멘티사업을 했다. 경기도는 2015년을 시작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협력 멘토링 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다. 먼저 운영하는 도서관이 새로 여는 도서관에게, 안정된 운영을 하는 도서관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싶은 도서관에게 멘토 멘티를 한다. 멘토는 운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멘티는 자신이 적용 할 바를 찾는다.

대구중앙도서관에서 멘토멘티를 했어요. 6개 도서관이 신청했고 내가 2개 도서관에 갔는데 완전 다른 거지요. 작은도서관들의 고민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자원봉사부터 동네 행정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도서관 활동가가 가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몰라 절대 못하거든요.(K 도서관)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는 해마다 신입관장들과 워크숍을 한다. 신입들끼리 만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받고 선배관장님들에게는 어떻게 그 상황을 넘겼는지 조언을 듣는다.

신입관장도 있지만 기존관장도 있죠. 관장의 역할 내가 생각하는 관장의 모습, 작은도서관의 생성 역사, 우선 관장의 역할을 이야기하죠. 사람관계 갈등해결, 민원에 어떻게 대처 하는가 동아리 운영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활동하셨던 선배님을 많이 부르죠. 각자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봐요. 그 도서관을 돌아보면 관장님 여기도서관이구나 알 수 있구나 분위기도 알고 재미있었어요.(M 도서관)

(3) 혼자 보다는 여럿이

혼자서 공부하던 것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기, 소속 자원활동가들과 모여서 공부하기, 지역네트워크로 확장해서 필요한 공부를 한다.

그림책깊이읽기 00에서 했어요. 강무홍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후속 소풍도 가요. 참 좋아요.(N 도서관)

마음에 맞는 사람과 공부하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더 잘 들으려고 애쓴다.

저에게는 소중한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더 잘 들으려고 해보고 있는 거예요.(C도서관)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나 교육은 주위 사람들과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서로 같이 성장하는 게 좋다. 혼자 하라고 하면 주저했을 교육도, 힘든 교육도 같이 들으면 끝까지 해낼 수 있다.

알게 된 건 지역실무자들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들었지요. 우리가 다들 전공은 했어도 옛날에 했던 거라 변화를 알려면 찾아서 들어야 한다. 내가 직장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알고 좋은 건 같이 해서 우리가 동반 성장 하는 게 좋은 거라.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O도서관)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사서교육원 다녔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혼자 다니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야. 일 년 동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육을 마칠 수 있었죠.(P도서관)

각자 흩어져 자기 도서관 사람들끼리 모여 운영하다가 점차 다른 곳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져서 서로를 찾는다.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같이 진행한다. 청주, 대구, 인천, 파주, 고양, 춘천 등 지역별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있다. 협의회는 모임횟수는 지역마다 다르다. 매월 모이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일 년에 두서너 번 모이는 곳도 있다. 협의회에서는 도서관 회원들간의 교류, 정보공유, 시와 간담회 따위를 모여서 의논하여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역 도서관 상황을 수집하여 그들의 필요성을 듣고 작은도서관 교육을 진행한다. 월례모임 때는 회원끼리 달마다 모여 같은 책을 읽고 도서관에 적용할 바를 찾아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다른 곳은 일 년에 몇 번 만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매달 만나서 논의하고 공부하고 00구 작은도서관지원조례도 이야기 했어요. (Q도서관)

전국단위 협회에 가입해서 정보를 듣고 배우기도 한다. 회원도서관은 지부별로 모임이며 서로 도서관 상황을 공유하고 나눈다. 서울지부에서는 간담회나 포럼 형태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도서관별 사례발표를 했다. '작은도서관 꽃, 책'을 주제로 책 선정, 배가, 독서활동 등을 개별도서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례발표를 했다. 사례발표 후에는 몇 사람씩 모여서 강의 주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의 도서관에 적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눴다. 모둠에서 모인 의견 중에 실천 가능한 것을 전체에게 발표를 했다. 이것은 듣는 이나 발제자나 서로에게 공부가 되었다. 서울지부 포럼이었지만 멀리 울산에서 포럼 주제를 보고 강의를 들으러 왔다.

여러 도서관들이 모이면 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배울 수 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나

능력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다른 도서관에게 전수를 한다. 이런 모임은 공부 주제가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위로하며 감동을 받는다. 돌아와서 새 힘을 받아 도서관운영에 전념한다.

도서관에서 특성화된 것을 들려주고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해요 실질적인 것을 해요. 우리도 저런 거 하면 괜찮다 직접 보여주고 좋았어요. 도서관마다 옮겨 다니고..고민 같이 나누고 프로그램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좋았어요. 주제를 갖고 이야기 하지만 모임을 자주하면 좋은 것 같아요. 모임을 자주하면 꼭 주제가 아니어도 부수적인 것이 따라 와요. 해결점이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공감대 형성되니깐 위로가 되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공부하고...(M도서관)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고 기획해서 진행한 교육은 만족도가 높았다. 협의회에서 모여서 만든 교육은 실무자들에게 의미가 있다. 서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모아 제안해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새로 들어오는 도서관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망을 얻었다.

대구 마을도서관네트워크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교육을 했었지요. 그때 김OO선생님이 애를 많이 쓰셨지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례 발표할 때 책마실도서관, 새벗선생님도 얘기를 하고 주로 장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완전 초기였을 때 교육을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지요. 가서 해놓은 거 우리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R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니까 스스로 하는 걸로 해서 해보자. 그게 책인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책 한권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우리끼리 책 한권을 만들어보자. 한 번 해보면 각자의 도서관에서 펼쳐보아도 되잖아. 그렇게 시작한 거야. (Q도서관)

2. 작은도서관의 중심 책과 사람 그리고 공간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 말한다 다음백과사전

. 계속 공부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 전문직은 이런 숙명을 선택한 사람들(다케우치 노리요시, 2002:154)이다. 그런 숙명을 선택한 작은도서관 실무자도 마을, 사람, 책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므로 전문가다. 그 일을 보다 잘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은도서관 이용자와 소통하고 도서관의 기본인 책을

4) 다음백과사전

살핀다.

1) 책(정보 자원) 이해하기

작은도서관은 공공에서 담지 못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주민을 만나고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사회운동으로 문을 열었던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본 목적인 책읽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한다. 지역주민들은 모임, 회의, 동아리활동을 하려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한다. 작은도서관을 오래 자주 이용할수록 새로운 이웃을 만날 기회는 더 많다(최재연, 김찬호 2005:178). 최근에는 시대가 변화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비영리기구, 방과후를 지원하는 다같이돌봄지원센터, 책모임과 작가와의 만남을 여는 독립서점 등 여러 기관들이 생겼다. 하는 일들이 비슷하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작은도서관이 이들과 다른 점은 정보자원, 책이다.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많은 강좌들이 이루어지는거예요. 굳이 우리도서관에서 강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C도서관)

다른 사람들이 도서관을 하겠다고 올 때 그러면 무엇을 해오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 할 수 있고 어떤 캠프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여행도 할 수 있고 우리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공이 대단하거든. 책은 어떻게 구입하시고 누가 선정하느냐 하시면 책은 거의 다 기증을 받는대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을 하느냐도 다 책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책을 추천하고 어떤 책을 꽂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관계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책으로 놀이를 하느냐 책인 거 같아. (R도서관)

책으로 평생학습을 하며 실무자들은 스스로 성장해 왔다. 책에서 찾은 실마리로 책문화가 펼쳐지는 것 또한 다른 공간과 다르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책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글을 쓴다. 이용자들에게 책을 권하고 책모임을 주선한다. 이용자와 같이 만들어가는 책문화기획 역량이 점차 필요해진다.

지금은 도서관모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독서모임이에요. 엄마도 아이들도 독서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성인을 위한 독서모임만 해도 몇 개 생겼는데 의외였어요. 예전에 많았던 품앗이 공간이 다른데서 되는 거예요. 책에 대한 전문적 이해나 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아야 되 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S도서관)

장서를 잘 알고 그것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독서문화를 하고 싶은 거 그러 면에 있어서는 책을 보고 싶은 거, 책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운영하고 기획하는 것을 원하죠 책 분류, 속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B도서관)

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책을 골라서 잘 배치하고 이웃들과 잘 공유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장서공부를 한다. 십진분류법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특색에 맞게 장서를 유지하고 보관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개별 도서관의 역량에 따라 도서관 장서가 달라지는데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배우고 싶다.

책을 잘 골라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책 배치하거나 좋은 책을 확보하고 배치하고 공유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장서관리를 모르잖아요. 우리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십진분류를 혼자 공부했어요. 기본을 공부하고 나니 작은도서관은 특색이 있으니깐 십진분류법을 넘어서 특색에 맞게 장서를 유지하고 보관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개인 역량에 따라 도서관에 수준 차이가 나니, 배치하고 안내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배우고 싶죠. (T도서관)

2) 사람을 이해하는 일

사람이란 것은 어떤 보이지 않은 공동체(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은 일정한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김현경, 2015;31). 도서관이 이용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만들어준다. 사람에게 절대적 환대를 내어 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도서관 안에서 받은 환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게 돕는다. 실무자는 도서관에 오는 누구나에게 환대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맞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타인을 이해해야 한다.

실무자는 끊임없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고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 주 이용자에 따라 어르신, 청소년, 여성, 다문화 특성화 계층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게 살필 수도 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할 마음의 품이 넉넉해야 한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 이용자로 만나며 소통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때때로 관련된 책을 이용자에게 소개한다.

도서관 공간이 학부모 상담실처럼. 아침에 아이 싸대기 때리는 사람이야기, 눈물짓고 기다리면 이야기 받아주고 학교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선생님에게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받아쓰기 0점 맞았는데 어떻게 하나, 온갖 학부모들 고민을 도서관에서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풀 수 있는 게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따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개입해서 일을 그른 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책을 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U도서관)

이용자에 따라 도서관에서 찾는 책이 다르다. 이용자가 신화, 판타지, 모험 공룡 좋아한다면 도서관에 이런 새 책이 나오면 이용자에게 권할 수 있다.

매일 도서관에서 저 끝날 때 가는 아이는 책 광인데 해리포터는 일곱 번을 읽었어요. 5학년인데, 해리

포터 파랑던컨, 판타지를 섭렵 다했어요. 계속 계속 읽어요. 찍힌 게 한 권도 일곱 번을 찍은 거예요.
(D도서관)

도서관에 늘 있는 실무자는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자주 오는 이용자인지,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인지, 오늘 처음 오는 분인지 그들을 기억하고 맞이하는 일은 실무자에게 중요한 일이다.

작은도서관은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관장님이나 상근자도 필요한 이유예요. 늘 오던 사람을 반기고, 말을 건네줄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M도서관)

때로는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오시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 본다.

직접 제가 머물러 있고 어머니들이 안 오시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요. 어르신들이 이틀연속 안 오시면 불안하거든요. 제 일인 것 같아요. 시골은 어머니들이 안 오시면 찾아가 봐야 해요. 그게 제 일이에요. 왜 안 오세요 하면 병원 갔다 그러거나.. (W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이용자에 따라 필요에 맞게 변화한다. 그 안에는 책과 사람에 대한 풍부한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어질 때 가능하다.

3) 도서관, 제 3의 공간

레이올텐버그는 사람에게서는 편히 오고 갈 수 있으며, 시민참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 제 3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집 또는 가정이라는 제1의 장소, 직장이나 학교라는 제2의 장소를 잇는 제3의 장소가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된다고 내다보았다. 도서관이 제 3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모두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공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며, 차와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사람들은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관계를 세우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서로 도움 받으며, 혼자에서 여럿이 성장할 수 있다(레이올텐버그, 2019).

북유럽에 가면 마을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도서관이 있다. 우리에게서는 마을을 기반으로 둔 작은도서관이 있다. 새로 이사 온 마을 사람에게 마을 정보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다. 아이 키우는 엄마는 경험 있는 엄마에게 육아정보를 얻는다.

도서관에 오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 양육 부담이 큰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서관에 와서 경험 있는 엄마들로부터 정보도 얻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더라구요.(S도서관)

뜨개질에 관심 있는 이웃에게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 해줄 수 있으며 여럿이 모여 뜨개질 모임을 할 수도

있다. 마을행사 소식을 도서관에 가면 알 수 있고, 책을 반납하면서 책 소감을 나누어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해왔던 일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장서, 실무자가 있다. ‘작은’은 규모나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작은도서관의 실무자의 기술, 재능, 창의력의 한계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어린이서비스,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독서문화프로그램, 네트워크, 참고문헌서비스, 장서서비스, 개별 이용자 맞춤 서비스 등 어느 정도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행정능력도 있어야 한다. 예산집행 및 정산, 일 년 사업계획, 자원활동가와 관계 따위를 책임진다.

우리가 보통 큰 도서관은 사서는 여러분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각각 한 파트면 되잖아요. 수서, 대민서비스 전문가 한 영역에 전문가 하면 되잖아, 작은도서관은 모든 영역을 다 잘해야지요. 책도 알아야 하지, 네트워크도 잘해야지, 손재주도 있어야지, 사람을 잘 만나야지, 내가 손재주가 없어 이용자와 손재주 연결해주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D도서관)

이 모든 일을 혼자 일하는 실무자가 담당한다. 마을, 지역, 도서관에서의 요구는 늘어가고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은 많아진다.

작은도서관 인력이나 예산이 적어서 한사람의 실무자에게 너무 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마을에서도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K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급여 없이 일하는 실무자들이 있다. 투철한 정신력으로 도서관학의 기초를 쌓았던 듀이처럼 실무자들은 시대를 앞서나가며 작은도서관 기초를 차곡차곡 쌓았다. 이런 경험은 기적의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사람들에게 공부장소로 생각했던 도서관을 정보와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관 중심도서관에서 이용자중심 도서관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했다.

순천에 기적의도서관 1호가 생기고 아이들이 책을 보면 좋겠다 생각 때문에 우연하게 갔다가 참 좋구나 접하게 된 거죠. 도서관이라는 게 옛날에 독서실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확 했던 것 같아요. 새롭다 이 생각 때문에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W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가치와 철학, 선배들에게 배운 삶의 태도, 감동은 삶의 활력소지만 막상 자신이 적은 급여, 작은 도서관에서 해야 할 수많은 역할을 생각하면 실무자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소중한 공간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무자의 길로 선택하는 어려운 결정을 한다.

1세대 선생님은 희생을 했겠지만 우린 다르거든요. 약간 달랐어요. 내 아이 책 읽어주려고 했던 거고, 그렇게까지 십자가 진 희생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긴 너무 소중한 공간이야..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거

야. (Z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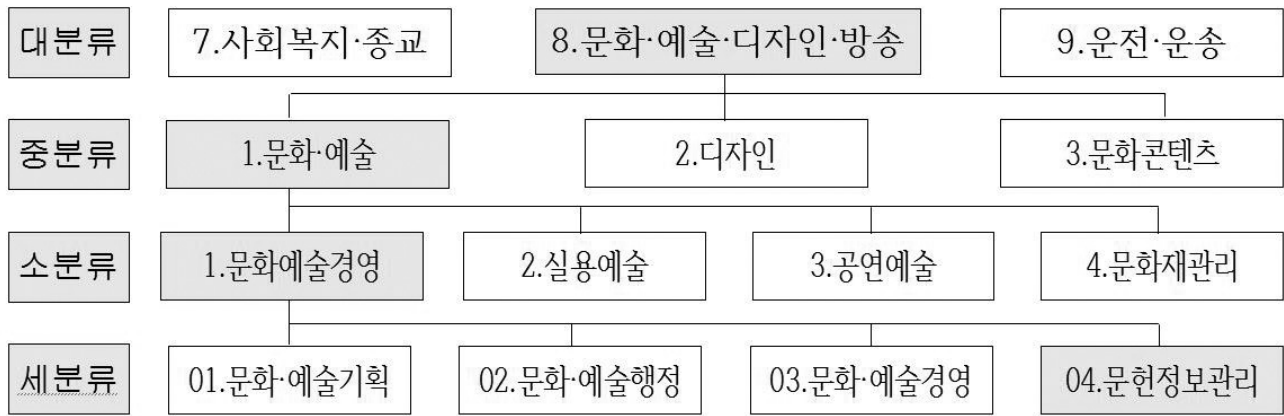
시대는 달라졌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받아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무보수로 운영하는 시민의 참여공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도서관에 오는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고,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경험으로 시민참여의 힘을 낼 수 있게 거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용자를 환대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작은도서관 실무자이다. 랑가나탄 ‘제 1법칙 도서관은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를 실행하려면 ‘도서관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십시오’ 역시 실행되어야 한다 (랑가나탄, 2005).

제 3장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제언)

작은도서관은 자유롭게 책을 만나는 지역의 정보센터이자 배움의 공간,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해왔으며 이용자와 가깝게 만나왔다. 책과 이용자를 만나게 하려면 그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야 한다. 그들의 인권, 사회문화적 환경, 이용자에게 맞는 공간과 서비스, 책모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자원 활동 운영, 다른 나라 도서관사례까지 두루 알아야 할 것이 많다(박영숙, 2014). 예를 들면 10대들이 도서관에 오면 그들의 문화와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많은 실무자들은 문헌정보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도서관 실무자로 일을 하는데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도서관은 열려 있고 상황에 따라 유용한 학문을 가져와 쓸 수 있는 현장이었다. 실무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며 일해 왔다. 보다 나은 작은도서관 역할과 방향을 탐구해가며 시야를 넓혀 온 것이다.

끊임없이 사서 자격 없음으로 실무자의 능력을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무자가 작은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은 학부에서 받는 기술요구보다 자주 요구되며 복잡하다(로널드 B. 맥케이브, 2001)는 것은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작은도서관의 업무는 문헌정보관리직무와 작은도서관의 특수성까지 합쳐서 일하고 있다. 문헌정보관리에서 작은도서관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내용과 실무자가 요구하거나 배웠던 정보와 지식을 합쳐서 작은도서관 교육과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5)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다. 이 자료는 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에서 활용 할 수 있다. 기업체에서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인사과정의 기준, 근로자경력개발, 직무기술서에 사용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훈련과정, 교수 계획 및 매체, 교재를 개발한다. 자격시험기관에서는 자격종목의 신설통합폐지, 출제기준 및 개정으로 자격시험에 반영한다.



〈그림 1〉 ‘문헌정보관리’ 직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

1. 문헌정보관리 직무에서 제시하는 업무영역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려면 어떤 지식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받아 실무에서 적용하는지 찾고자 하였다. 도서관의 기본학문인 문헌정보학을 바탕으로 둔 문헌정보관리 직무와 작은도서관 실무자의 직무를 비교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5)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은 대분류에서는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이다. 중분류에서는 1.문화 예술 2.디자인 3.문화콘텐츠, 소분류 1.문화 예술 경영 세분류 1.문화 예술기획 2.문화 예술행정 3.문화 예술경영 4.문헌정보관리에 속한다.

도서관은 문화정보관리와 문화예술영역과 공유한다. 일상의 문화를 만들고, 책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역시 소분류 문화예술경영에서 나온 문헌정보관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작은도서관 교육 수요조사(김자영외 3인, 2018)에서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기본 교육은 작은도서관에서 책, 사람, 독서문화프로그램, 네트워크였다(김자영외 3인, 2018). 이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비교하였다.

작은도서관과 책은 문헌정보수집, 정보조직, 보존, 큐레이션

작은도서관과 사람은 이용자정보 서비스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문헌정보이용분석, 독서문화프로그램,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는 도서관 정보 센터경영관리

용어는 다르지만 〈표 1〉 국가직무능력표준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단위 요소를 살펴보니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배우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 실무자에게 문헌정보관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작은도서관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문헌정보관리' 직무상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명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요소	기본교육
문헌정보 수집	도서관의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입수하며 평가하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수집 정책 개발하기	책
		2. 문헌정보 선택하기	
		3. 문헌정보 입수하기	
		4. 문헌정보 평가하기	
문헌정보 조직	이용자들이 적합한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1. 분류하기	
		2. 목록작성하기	
		3. 메타데이터작성하기	
문헌정보 보존	자료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게 수집된 자료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집된 자료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수집자료 관리하기	
		2. 보존하기	
		3. 폐기하기	
		4. 디지털 아카이빙	
문헌정보 큐레이션	새로운 정보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발굴, 생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정보 분석하기	
		2. 정보 가공하기	
		3. 생산된 정보 평가하기	
이용자 정보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이용자정보서비스 기획하기	사람
		2. 이용자정보서비스 운영하기	
		3. 이용자정보서비스 평가하기	
문헌정보 서비스마케팅	문헌정보 및 관련 기관의 이용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기획하기	
		2.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실행하기	
		3.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평가하기	
도서관정보 센터경영관리	도서관/정보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과 부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 능력이다.	1. 기획전략 수립하기	네트 워크
		2. 조직인사관리하기	
		3. 정책 분석 적용하기	
		4.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문헌정보 이용분석	문헌 정보 및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성과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이용 평가하기	독서 문화 프로 그램
		2. 시설 이용 평가하기	
		3. 프로그램 운영 평가하기	
		4. 연구 성과 분석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이용자의 독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프로그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는능력이다.	1. 운영계획 작성하기	
		2. 프로그램 진행하기	
		3. 프로그램 평가하기	
문헌정보 시스템운영	필요한 문헌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구축하는데 반영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정보 시스템 환경 분석하기	
		2. 문헌정보 시스템 기획하기	
		3. 문헌정보 시스템 구축하기	
		4. 문헌정보 시스템 운영하기	
		5. 문헌정보 시스템 평가하기	
문헌정보 실무연구수행	문헌정보 전문가로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문헌 연구하기	
		2. 연구 수행하기	
		3. 연구 결과 활용하기	

2. 작은도서관 교육과정

새로운 학문은 기술로 시작하다가 차츰 경험을 쌓으면 학문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신이 원하는 학문으로 배울 때 학습은 빨라지고 배우는 즐거움은 커진다. 도서관학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의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 배워야 한다.

자원활동가로 있다가 도서관 실무자로 일하는 사람, 시에서 파견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 순회사서 등),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운영자로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 작은도서관을 이해하는 배경지식과 경험, 실무에 필요한 내용, 연차도 다양하다. 먼저 작은도서관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개별로 알고 싶은 내용을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의 이해라는 큰 주제로 강의를 듣더라도 강사진과 듣는 사람에 따라 교육내용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목록을 구성하고, 항목마다 세분화해서 어떤 내용을 익히고 배우면 좋을지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경험과 근무환경과 관심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거나 교육과정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1) 단계별 교육

(1) 기본교육

작은도서관 중에 사립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의지를 가지고 설립하고 저마다 설립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한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시설은 건물면적33㎡ 이상, 열람석(좌석 수)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도서관을 열 수 있어서 개인서재를 개방해서 작은도서관을 열기도 한다. 도서관으로 문을 연 이상 이 공간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여닫는 공공의 공간이 된다. 도서관은 공간으로서 사람을 모으게 하고, 부담 없이 새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어서 연다.

책을 좋아하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 꿈이 도서관이래요. 내가 왜 도서관하려고 해~공간의 욕심이 있어. 책들이 많으니 도서관을 만들면 좋겠다고. 어떻게 운영 하실 건가요 (G도서관)

막상 작은도서관 개관 후에는 생각과 달라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관을 하기도 한다. 사전에 작은도서관⁶⁾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폐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에 가면 작은도서관 설립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작은도서관 등록 폐관 절차, 시설 및 자료기준과 함께 도서관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도서관 폐관신고서 등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연락처와 작은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도서관법도 알려준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도 찾을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 추천운 영사례와 작은도서관뉴스도 알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 아파트 도서관 실무자, 작은도서관 1년차 신입 운영자나 실무자에게는 작은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듣고 만약 책이 있는 공간을 원한다면 작은도서관 보다는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을 권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개별 특성에 상관없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려면 <표 2> 작은도서관 기본교육과정으로 작은도서관의 이해, 운영메뉴얼, 공간구성, 도서관리, 재정, 활동,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필요한 내용은 집중해서 더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작은도서관 기본교육과정(안)

차 시	주 제	교 육 내 용
1강	작은도서관의 이해	역사
		작은에 담고자 하는 생각(철학)
		운영자 가치와 철학
		작은도서관을 하려는 목적
2강	운영메뉴얼	등록하는 방법, 운영규칙, 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칙
		운영위원회
		연간계획
3강	공간구성	구성
		활용
		사례
4강	도서관리(장서관리)	도서프로그램(책꽂이, 코라시스 등)
		책을 고르는 정보원(책씨앗, 어린이도서연구회, 그림책사이트, 글자책 정보),
		도서구입 (지역서점, 온라인, 유통업체),
		수서목록 (노인, 분야별, 특화장서)
5강	재정	책 전시(북큐레이션, 북컬렉션)
		보조금 지침
		자부담 (후원, 기금마련-장터, CMS, 기금조성)
6강	활동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마중물이나 족쇄냐)
		독서문화기획 과정
		일상에서 책 읽기,
		특별기획 활동
		책이나, 문화예술이나
7강	조직	책모임
		누가 어떻게 할 건지(외부강사, 자원활동, 직원)
		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
8강	네트워크	자원활동가, 운영위원회
		직원성장 (M,T, 워크숍,교육, 회의)
		이용자층에 대한 응대
		지역사회 네트워크(관공서, 문화, 교육, 복지등)
		도서관 네트워크(공공, 작은)
		외부환경의 변화 돌봄, 환경(지속가능한), 교육

(2) 심화교육

작은도서관의 기본 교육과정에서 많은 실무자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도서관리(장서개발), 활동(독서문화프로그램), 조직과 네트워크였다. 영역별로 특성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고민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구성하였다. 관심에 따라 세부항목마다 생각하고 공부할 거리가 많다.

① 장서개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근무경력이 있는 실무자는 작은도서관에서의 장서관리, 책 문화 활동에 관심이 높아진다. 이용자가 원하는 책, 최근에 나온 새 책을 구입하지만 어딘가 불편하다.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이용자와 도서관이 원하는 좋은 책을 장서로 구입하고 싶다. 한정된 공간에서 장서 구입, 폐기, 전시, 배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무자들은 고민한다.

책을 서가에 배가하거나 책을 고르는 문제들도 고민하게 되고,(C도서관)

책 정리하는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책이 많아지니까 작은도서관에 책이 많아요. 저는 자원활동가로 시작하고 기간제 사서로 일하니깐 라벨 부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오래되면 빼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오래된 책을 빼면 활용하는 방법은 나눔이고 폐기 기준은 없어요. 계속 고민 되었던 게 장서관리요. (Z도서관)

도서관에서 장서는 이용자들이 정보나 자료가 필요한 때에 원하는 형태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가치 있는 장서가 도서관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에서의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운영목표와 지역사회와 이용자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문헌정보학계에서 장서개발은 가르쳐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도서관 자료의 선택은 고유한 전문직의 영역이며 특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나뉜다(엄영애, 2000;175). 두 가지 입장을 종합해보면 장서개발에 요구되는 능력은 짧은 시간에 습득되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표 3> 장서개발 교육과정은 크게 조직, 수집, 보존, 전시(큐레이션), 폐기까지 과정을 담는다. 이 과정은 단계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이루어진다. 처음 도서관의 운영목표에 장서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3〉 장서개발 교육과정(안)

차시	주제	항 목	주 요 사 항	내 용
1강	문헌 정보 조직	목표	도서관의 운영목표와 장서개발정책의 목표를 세우기	
		지역사회	문화 사회적 환경 파악하기	교육기관, 문화,체육복지, 특성, 주택환경 등
		이용대상자	도서관 이용자 파악하기	연령, 학력, 직업, 관심사, 특수한 상황 등
		자료이용	도서관 자료이용 관련규정 살피기	대출기간, 대출권수, 이용규칙
		특성화	도서관 핵심 이용자의 장서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장서구축에 반영한다.	특화하는 장서분야 설정
2강	문헌 정보 수집	자료선정	자료를 유형별, 주제별로 분류	지역사회 요구조사 자료의 출판동향 파악 참고정보서비스 책 고르는 법 핵심장서 리스트
			자료의 선정기준 및 근거 (도서관 특성에 맞는 선정기준)	이용자(희망도서신청) 신간도서 자료선정위원회(도서관이용자, 외부전문가, 도서관직원 등)
			자료 선정 방법	선정도구 활용 실물수서 현장수서
			도서자료 외의 자료선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	CD, DVD, 음악, 메이커스 재료 등
			자료입수	구입 자료 기증 자료 처리 계획
3강	문헌 정보 보존	장서관리	장서점검 및 자료유형별 관리	협동장서관리 (상호대차, 목록공유).
			참고문헌서비스	정보자원
		장서평가	자료를 평가하는 목적,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 기준에 마련하기	장서중심평가, 이용자중심평가, 주제별 평가, 사서추천도서 평가 등
		자료폐기	평가의 근거하여 폐기 (외관, 물리적 상태, 복본, 내용상의 빈약, 도서의 수명 등)	파기-직접파기또는 재활용기관 기증 교환(타 도서관과 도서교환) 별치(보존) 판매(벼룩시장, 중고서적 등)
4강	문헌 정보 큐레 이션	북큐레이션 & 북컬렉션	이용자의 취향, 사회상황을 분석해 적절한 정보를 추천하는 일 (참조서비스 일화)	프로그램 연계 컬렉션 사회 상황이나 요구

작은도서관 교육에서 장서개발은 꾸준히 교육 강좌로 열린다. 주로 2시간 강의로 강사에 따라 자료수집, 큐레이션, 목록이해, 출판동향 등을 따로따로 교육한다. 전체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장서개발의 전체를 이해한 뒤 필요에 따라 세부 항목들을 교육하였으면 한다.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자신의 도서관에 맞는 장서개발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며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장서목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장서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서개발은 계속교육을 해야 한다. 장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니 이용자 요구와 도서관 상황에 맞춰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② 독서문화기획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보면 독서, 예술, 주제별강좌, 교육강좌, 취미문화강좌 등 다양하다.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학습과 관련된 유료 문화강좌들이 많다(김영숙, 2018).

독서문화프로그램, 책문화프로그램의 이해부터 프로그램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기본을 해야 하는 거지요. 책문화기획이라든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지? 대부분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교육을 대체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엄마들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학습적인 것을 충족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거. 문화교육을 여기서 다 하겠다고 하는 거..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Y도서관)

도서관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다른 문화기반시설이나 각종 복지관 등 복지 시설, 심지어 백화점에서 운영되는 문화프로그램과 별반 차별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 내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도 그 경계가 모호하다.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독서문화가 무엇인지 기획을 할 때가 되었다(황금숙외 2인, 2007; 239-240). 이제는 강사중심의 프로그램, 다른 센터와 차이 없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 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고리를 책에서 찾는다.

장서를 잘 알고 그것에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독서문화를 하고 싶은 거 그러 면에 있어서는 책을 보고 책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운영하고 기획하는 것을 원하죠. (B도서관)

책에서 고리를 찾으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작은도서관과 맞는 것일까 그 답을 찾아 나선다. 도서관의 일상과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기획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

내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배워서 이 마을에 어떤 걸 주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생겼지요. 단순히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C도서관)

도서관에서 제일 뻥 신게 기획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해야 하지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하고, 단순히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쪽 이어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개인이든 도서관이든 성장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보와 뭔가 계속 정보를 취합하거나 책을 보거나 한시도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거~도서관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T도서관)

최근에는 기획과정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독서문화기획 교육이 열렸다. 2018년 슬슬협동조합에서 독서문화활동 기획으로 첫 강의는 독서문화활동 기획이 무엇인지 듣고 두 번째 강의는 실제로 적용했다.(슬슬협동조합, 2018;22)

같은 주제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흐름과 ‘인천’에 맞게 적용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진행했다(손보경, 2019).

〈표 4〉독서문화기획교육과정은 개별 도서관의 운영목표에 따라 어떤 독서문화가 필요한지 기획하고 그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 여러 도서관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더라도 직접 부딪혀서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좋다. 독서문화 기획 경험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서로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작은도서관에서는 ‘독서’ 행위 중심의 문화기획에서 ‘책’ 중심의 문화기획으로 갈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책은 일상이며 어떤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주며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줌으로 책문화기획으로 확산해서 생각해야 한다.

〈표 4〉 독서문화기획교육과정(안)

차시	주제	주요 사항	내 용
1강	독서문화 기획이해	독서문화기획의 이해 및 가치	도서관의 운영목표 이해하기
			왜 독서문화기획 인지
			기획자가 가져야 할 자세
2강	독서문화 기획실제	기획하기	육구(사업의 목적, 대상, 일정)에 따라 어떤 상황인지 파악
			목적과 목표 작성하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디자인씽킹 프로세스(공감, 정의, 구상, 시제품, 평가)
			구상하기(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이팅)
			내용 선정하고 구성하기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확인	인력
			예산
			홍보, 마케팅, 소통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실행단계 주요과업
			역할 분담
			기록과 문서
		성과 평가하기	정산, 아카이빙
목표중심, 과정평가, 참여-반응평가, 전문가평가 등			
3강	독서문화기획 사례공유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직접 기획	

③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마을에는 사람들이 산다. 작은도서관은 마을에 있다. 걸어서 10분 거리 마음만 먹으면 슬리퍼 신고 와도 괜찮은 거리에 도서관이 있다. 이웃과 인정이 있는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책, 기관과 기관을 연결한다. 모든 마을의 정보가 도서관으로 모인다. 마을에 있는 지역기관, 단체와 협력하기 때문이다. 청주 초롱이네도서관은 지역 기관단체들과 협력해서 해피아이네트워크를 한다. 해마다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

네트워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한 꼭지를 맡아 운영하는 주체로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 하다가 본인 도서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장님들이 너무 바빠요. 네트워크를 활발히 하는데 거점 중심을 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마을반사회, 축제도 해야 되죠. 관장님이 대외적인 업무를 해야 하니깐 도서관에 상주할 사람이 없고... 사람이 안 남는 거예요. (M도서관)

마을 안에 머물면서 주민들과 잘 어울리며 작은도서관을 꾸려나가는 일은 다른 기관과 마을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이웃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로널드 B 맥케이브, 2001).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표 5>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와 시대 상황을 읽고 다른 서비스기관과 협동해서 지역사회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주민과 같이 지역사회와 작은도서관을 일궈나가며 끊임없이 배워나갈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는 실무자와 수평 관계이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사용과 주인의식으로, 도서관직원은 이용자에게 존중과 배려로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적인 활동, 프로그램, 행사 등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5>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교육과정(안)

차시	주제	주요 사항	내용
1강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구성요소	지리적특성, 생활상 특성, 주민, 단체 기관
		지역사회역동	상호작용
		지역사회 문화	역사, 전통, 종교
		지역사회 자원	개인, 단체·기관, 재정
		지역사회 욕구문제	주민의 공동 요구, 문제
		지역사회 경험	주민의 참여경험
2강	네트워크 유형	정보교환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정보, 조언, 아이디어 등을 직접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교환
		인력교류	(순회)사서, 작은도서관운영, 실무자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거나 지원
		재정지원	프로젝트 지원, 후원금, 운영비 지원
		상호대차	타 기관 간 자료 상호대차, 자료제공
		공동사업	기관들이 모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나 시범사업등을 계획하고 수행
		프로그램공유	도서바자회, 작가와의 만남,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공유
		물적자원공유	기관 간 시설, 장비, 차량, 사무실이나 작업장 물적자원 공유나 사용
		행사참여	지자체 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회의, 워크숍 행사 참여
3강	지역정보 서비스	지역정보서비스 제공유형	지역일반, 역사 및 문화, 경제생활, 생활주거환경, 육아 및 교육, 복지, 문화예술, 생활체육, 건강 및 보건, 도시농업, 생활안전, 일자리확보, 마을공동체 등
		이용자요구	지역주민 정보요구 반영 지역정보서비스제공, 지역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실시, 계층별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정보원	인쇄매체, 디지털매체, 온라인정보(지자체홈페이지,
		지역정보수집방법	구입, 기증, 외부기관 자원 직접수집, 인터넷 탐색, 기관추천, 이용자추천, 자관의 소장자료를 활용한 지역장보자료 구축등
		지역정보의 관리	지역생활정보 데이터 베이스 파악, 지역기관들과 SNS, 기증지역정보, 지역정보서비스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갱신
		외부기관 협력	지역정보 자료 수집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 협력,

2) 교육형태

(1) 강의식 더하기 모듈별 토론

작은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은 주로 강의식으로 한다.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대강당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강의식 수업방식은 많은 사람에게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교육방법이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관심사항이 너무 다를 때는 교육 효과가 적다.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강의로 진행되는 교육이라면 오전 오후 나누어서 교육방식을 나눠서 진행하면 좋다.

슬슬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교육방식은 1강좌 주제 강연을 듣고 오후에는 모듈활동으로 각 모듈에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가서 모임을 진행한다. 퍼실리테이터가 모듈활동에서 개인의 욕구와 교육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듣고 서로의 연결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도와서 교육의 만족도 높다. 모듈구성원끼리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힘을 얻어간다.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난다.

작은도서관 사람들은 풀어내는 것을 좋아해요.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관심이 없지만 풀어내는 시간을 주면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요 교육시간 안에 참여하게끔 했어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있어요. 만나서 작은도서관 이야기하면 힘을 얻는 게 있어요.(OO협동조합)

(2) 사례발표(희망연수)

강의형 사례발표는 일방적인 전달이다. 개별도서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사례발표를 듣다보면 그 도서관 상황이 특수해서 가능한 거겠지 생각하게 되고, 연차수가 더해질수록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사례발표 후에 개별도서관의 고민을 묻고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사례발표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발표하는 사람은 도서관 사례를 스스로 정리해 볼 기회가 생긴다.

사례교육 이런 거 들으면 우리도서관 어때요 이런 것만 듣는데, 자기네들의 고민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실제 만든지 얼마 되지 않은 도서관에게는 정말 필요하겠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시작하는 도서관들에게는 일방적이 주입식이 아니라 대화(이야기)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K도서관)

HT도서관에 와서 사례발표를 했어요. 공유해보고 나니 개인적으로 LK도서관의 틀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막연하게 이런 거요. 세부적인 정리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LK도서관)

작은도서관 희망연수7)를 제안한다.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인력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도서관답게 일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궁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자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모아서 뜻있게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작은 도서관에서 잘해 온 일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래서 희망을 품는 것이다.

관심 있는 주제, 직급끼리, 비슷한 연차인 실무자들끼리 모여 작은도서관의 가치나 방향을 공유한다. 한 가지씩 자신의 도서관 사례를 미리 준비해서 발표한다. 사례발표를 듣고 잘한 점을 살피고,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한다. 발표한 사례들 중에서 자신의 도서관에 적용할 것이 있다면 더 깊게 질문한다. 사례발표 분석 적용이 아니라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그러면 관계가 생기고 돌아가서는 서로 힘 받아 스스로 배운 바를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제 공부 네트워크

덴마크사서협회⁸⁾에서는 전문 진행자와 같이 협회에서 지원하는 전문네트워크를 만드는 교육을 한다. 형식은 협회에서 공동모임으로 3회, 서로 장소를 옮겨가며 네트워크 모임 6회를 한다.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네트워크 구성은 10명~18명이 참가한다. 이 모임은 정보자원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자원서비스를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의견을 모아 깊이 있게 공부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해보고 서로 나아 갈 방향을 토론한다. 구성원과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전문적인 수준으로 한 분야를 깊게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원이 중요하다. 사전에 신청할 때 모임 참여 동기, 모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써서 제출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긴 시간 동안 모여서 주요개념 익히고 실제로 해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공부방식이다. 공부 내용을 묶기만 해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3) 교육주체

(1) 국립중앙사서교육원 온라인교육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교육원이 있다. 작은도서관을 위한 교육은 1년에 3회(3,6,9) 작은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집합교육과 1년에 2회 찾아가는 도서관 맞춤형 교육을 한다. 온라인 교육은 공통교육으로 1달에 3과정을 최대 로 들을 수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하여 KOLASYS-NET v.3.0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들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다. 도서관 경영, 작은도서관 운영, 홍보나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서평쓰기 다양한 강좌들이 열려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실무자들이 그 교육을 듣고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했다.

7) 현장이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8) <https://bf.dk/>

사서교육원에 들어가서 도서관 경영, 작은도서관운영, 홍보나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이나 어린이도서관 연구나 서평쓰기 등을 주로 들었고, 도움이 되었다. (V도서관)

우린 그거 옛날에 다 들었는데, 실무진들이 모두 듣기도 하고요, 모여서 듣진 않고 그 당시에 개별로 들었고, 수료증도 받았고요, 새로운 교육이 나오면 공지하고 들어라 했지요, 초창기에 열 몇 개 센터가 있을 때는 모여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했었는데, 점차 개수가 작다보니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신입교육을 대체하기도 했었어요, 원하는 것을 골라서 들었지요, 그 당시 실무자들은 거의 다 들었지요.(O도서관)

사이버 작은도서관 운영과정은 25분 28강좌로 진행된다. 2010년에 만들어진 자료로 현재까지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열려있다.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기본 교육과정을 현 상황에 맞게 온라인 강의로 다시 제작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기본과정을 온라인으로 먼저 배우고 익힐 수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운영자교육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후,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작은도서관협회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위탁해 작은도서관운영자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다. 두 협회의 성격에 따라 작은도서관교육 내용과 진행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교육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1일(7시간) 집합교육을 한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운영매뉴얼 교육(2014)과 2017년 7개 권역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워크숍을 진행했다.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지역 참가자들이 전보다 참여하기가 쉬웠다. 오전에는 대규모강의와 오후에는 관중별 사례발표와 토론시간으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관중별 교육은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제작년 가을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진행한 권역별 워크숍, 저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관중별이라고 해야하나? 아파트 개인 단체 등, 유형별로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H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은 자원활동가, 실무자, 운영자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교육내용이 기본 교육 외에는 그 이상을 하지 못한다. 이제는 교육대상자를 구분해서 그에 맞게 교육내용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공통강의와 지역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지자체 계속교육

지자체에서 일 년에 한번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교육이라도 담당자에 따라 교육내용의 질은 다르다. 담당자가 작은도서관의 이해가 있고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 활동가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연다. 이와 같은 교육은 듣는 이의 만족도가 높다.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이해가 있고 소통이 잘 되면 작은도서관활동가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지 알아보고 하면, C시는 2-3년 이내에 많이 바뀌었고, 커리나 강사, 내용 등 만족도는 좋았다. H시에 와보니 작은도서관 팀도 있고 담당자도 있긴 한데 여긴 공립도서관 위주이고, 사립도서관은 거의 배제되어있어요. 사립작은도서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는 하지만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교육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H시의 교육을 들었을 때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교육수준이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되었지요.(V도서관)

교육별 수준과 내용의 차이는 지역마다 다르다. 작은도서관 교육이 이제 시작된 곳은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역할, 운영 메뉴얼 실무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작은도서관 교육이 예전부터 있고 실무자들 이동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실무영역의 기술 뿐 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작은도서관에서 가치,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을 찾는다. 그러므로 지역협의회와 작은도서관 교육 담당자는 서로 의논하여 작은도서관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근무연수도 많고 바로 보는 시각이나 경험이 많아서 수준이 높다.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반영해달라고 했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냐? 시작해서 시와 소통을 했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육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해 달라 했더니...서울에 계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평생학습흐름에 대해 강의를 해주셔서 들었다. 실무자와 담당공무원이 같이 들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들었던 교육이기 때문에.(O도서관)

(4) 스스로와 여럿이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면 누군가 만들어준 교육보다 스스로 궁금한 것을 찾고 답할 수 있는 교육을 찾게 된다. 실무자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지만 쉽게 잘 되지 않는다. 지역에 있는 협의회, 전국 협회, 소모임에 참여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 공부할 거리를 찾고 꾸준히 모임 필요가 있다. 같은 책을 깊게 읽기, 다른 도서관과 사례공유, 영역별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자료와 책을 읽고 나누기 등을 모임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서로가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공유하는 것이다.

때로는 필요한 교육을 기획해서 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과 올해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는 스스로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했다. 지역에 뜻있는 도서관끼리 마음을 모아 교육을 기획해서 아카데미를 열었다.

〈표 6〉 스스로아카데미 지역과 교육내용을 알 수 있다. 지역마다 교육내용은 달랐으나 만족도는 높았다. 인제에서는 도서관 실무자로 처음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책을 읽고 공유한 후 관심 있는 주제 강사를 초대해 강의를 듣고 나름의 공부를 이어가기도 했다.

스스로아카데미 이후 후속모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개별도서관들의 사정으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곳들도 있었다. 모임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실무자의 이직이었다. 작은도서관 실무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담보된다면, 보다 나은 작은도서관을 위해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표 6〉 2018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스스로아카데미 교육내용

지 역	교육내용
서 울	강무홍작가와 함께 하는 그림책 깊이 읽기 (그림책의 특성, 플롯 분석, 인물 분석, 시공간적 배경, 논픽션 그림책, 그림책에 담긴 예술과 문학, 인생)
광 주	책돌이로 오고(go)! 책돌이가 가고(go)!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도서관 책 컬렉션 기획, 책 공간 운영, 홍보 영상, 책 전시 등)
파 주	그림책 놀이터(그림책의 이해, 그림책 파헤치기, 워크숍)
인제군	작은도서관학교(작은도서관의 이해, 책임기, 도서관탐방, 초청강연, 워크숍)
울 산	작은도서관, 청소년에게 다가서다(책 토론, 대안학교 청소년 만남, 청소년 당사자 만남-학생인권조례, 청소년 공간)
파 주	꿈의 나라를 떠다(교육연극)
대 전	그림책 이해, 사서분과 운영활성화 워크숍, 책 전시 방법론, 그림책의 그림과 언어의 이해, 사서활동가 매뉴얼, 지역사회프로그램 이해, 도서관 탐방, 소감회
구 리	작은도서관역량강화교육(역량강화 강의 및 토론, 작은도서관 확대 모임, 실무자 간담회, 워크숍, 협의회 구성)
인 천	독서문화기획 어떻게 할까

작은도서관의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민간(협회, 협의회, 개별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은 체계적인 기본교육과정을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다루어 주면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은 해마다 권역별로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권역이 너무 넓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권역을 조금 더 촘촘히 나누고, 변화하는 도서관 정책이나 관종별 토론이 가능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면 좋겠다. 지자체는 지역도서관 운영주체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단계부터 함께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는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는 있으나 공유가 적어 실무자들이 한정적으로 알고 있다. 사례를 정리하고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 4장 결론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작은도서관에서 수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오는 인정과 사명감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일할 힘을 얻었다. 작은도서관 역사에서 작은도서관 실무자 역량 또한 그렇게 증가했는가 묻는다면 답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 연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는 연차가 더해질수록 깊이 있는 내공으로 자리를 잡았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보다 작은 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더불어 마을을 품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도서관은 때때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안에서 일하는 실무자 역할도 그에 맞게 변화할 것이다. 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자의 영역을 잘 녹아내어 도서관 운영을 하는 곳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미 노르웨이 비블로 퇴위엔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프로젝트 매니저, 사진작가, 디자이너, 유치원교사 출신, 아티스트)이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제 3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 도서관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도서관에는 사람을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람, 제 3의 공간으로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정보자원과 사람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 필요에 따라 작은도서관 실무자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험으로 익히며 지식과 정보를 찾아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까닭이다.

1. 작은도서관 교육 변화로 가는 길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이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떻게 성장하고 배움을 이어왔는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작은도서관이 해온 역할을 살펴보았다. **첫째,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은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제 역할을 하려고 스스로 찾아가며 공부를 했다.** 도서관 관련 교육이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있다면 무작정 찾아가서 들었으며, 앞선 실무자들을 찾아가 경험을 듣고 운영에 관한 고민을 물어가며 배웠으며,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모여 도서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배웠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중심인 책과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모임을 꾸리고 함께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도서관에 맞는 책을 구비하고,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 실무자들은 도서관에 오는 모든 이를 맞이하고 이용자를 이해하며 그들의 성향과 관심에 맞는 책을 연결해주고자 애를 썼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제 3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이미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2.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교육

모든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소수의 열정적인 실무자처럼 직접 찾아서 교육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었던 작은도서관교육과정과 실무자들이 경험한 교육과 필요로 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내용은 작은도서관의 실무자가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전체 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첫째, 작은도서관 실무는 문헌정보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작은도서관과 책은 문헌정보수집, 정보조직, 보존, 큐레이션

작은도서관과 사람은 이용자정보 서비스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문헌정보이용분석, 독서문화프로그램,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는 문헌정보 서비스 마케팅, 도서관 정보 센터경영관리

용어는 다르지만 문헌정보관리 직무 능력단위 요소를 살펴보니 작은도서관 실무자가 배우고자 하는 것과 같았다.

둘째, 작은도서관 교육은 경험과 근무환경과 관심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본과정은 작은도서관에 처음 일하는 실무자나 도서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내용은 작은도서관의 이해, 운영매뉴얼, 공간구성, 도서관리, 재정, 활동,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의 전체 교육을 볼 수 있으며 주제별로 어떤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장서개발과 독서문화기획과정과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과정을 제안한다. 주용내용과 세부항목이 있어서 실무자에 필요에 따라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작은도서관 교육의 형태는 실무자들이 경험하며 배운 것을 스스로 정리하여 말할 기회를 주는 교육형태가 좋다. 대규모강의에 분임토의, 관심 주제나 연차별로 모여서 참가자 모두가 준비해서 발표하는 희망연수(사례발표), 한 주제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임을 제안하고 싶다.

넷째, 교육주체인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위한 의지와 정책이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은 1인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실무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방식을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유연하게 운영해주며, 지역 작은도서관들의 교육욕구와 지난 교육과정들을 살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의 주체는 실무자 자신이다. 스스로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공부하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혼자 가는 길은 힘들다. 소모임, 협의회, 협회 따위에서 옆에 있는 동료와 같이 걸으면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영, 정덕현. 2012.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
- 강은영. 201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황과 과제 - 정책적 이슈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관계부처 합동. 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 김보일외 2인. 2015.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9권 32-52
- 김영숙. 2018.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 2015. 《사람, 현대, 장소》. 문학과지성사
- 레이 올든버그. 2019. 《제3의 장소 - 작은 카페, 서점, 동네 술집까지 삶을 떠받치는 어울림의 장소를 복원하기》. 김보영 옮김. 풀빛
- 로널드B. 맥케이브. 2001.《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오지은 옮김. 이체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년도작은도서관운영실태조사및운영평가결과보고서》. 서울:문화체육관광부
- 박소희. 2019.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저널
-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알마출판사
- 박은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운영자의 인식 변화 연구", 2013., 한성대학교 대학원
- 손보경. 2019. "작은도서관 교육을 말하다 "
- 슬슬협동조합. 2018. 《책과 사람을 잇다 자료집》
- 신유미. 2019. "장서개발관리 분야 최근 연구동향 분석". 상명대학교대학원논문
- 다케우치 노리요시. 2002. 《우리아쓰도서관 이야기》. 도서관운동연구회. 한울
- 유양근,박송이,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21(1), 2010., 175-192, 한국비블리아학회
- 윤은미. 2008. "커뮤니티 개념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영애. 2000. "장서개발의 교육: 교육과정의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31권 3호 169-184
- 다케우치 노리요시. 2002. 《우라야쓰도서관 이야기》. 도서관운동연구회. 한울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성신,유희자,이세나. 2018.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작은도서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9권 제1호 77-97
- 전영순. "어린이문고의 현황과 전망". 2002. 제 40회전국도서관대회
- 차성종. 2016. "NCS '문헌정보관리' 직무 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활용도 평가를 통한 개선". 《한국문헌정보학회》
- 최규명. 2008.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재연, 김찬호. 2005.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역할 ". 《대한 국토 도시계획학회지》 제 50권 제 4호 165-184
- 황금숙외 2인.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 219-244
- SR랑가나탄. 2005. 《도서관학 5법칙》. 한국도서관협회
- W.M. Tharanga Dilruk, 장정민. 2019. "도서관에서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이해: 참고서비스의 혁신인가? 진화인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 50권 2호 215-235

제 56회 전국도서관대회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포럼 자료집

발행일 2019년 10월 8일

발행인 박소희

발행처 및 편집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02-388-5933) samlib.org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저작권은 글쓰이와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